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항)



향년 84 세, 60 년 수도생활을 하신 우리 자매
테레사 막달레나 플로리스 수녀님이
2020 년 7 월 10 일 15 시
네그라르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자매 테레사를 성부의 자비에 맡겨드리는 동안 “주여, 내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라는 성무일도 시편 후렴구의 말씀이 그분 입술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습니다. 이는 그분의 특징적인 기도정신을 드러내는 찬미입니다.

테레사는 1936 년 4 월 5 일 빌라시미우스에서 태어났고 같은 해 4 월 19 일 대천사 라파엘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1956 년 9 월 11 일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에서 입회했고 1958 년 9 월 2 일 입수련했습니다. 1959 년 9 월 3 일 첫서원을 하였고 막달레나라는 수도명을 받았습니다. 5 년 뒤 첫서원일과 같은 날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첫서원 후 바로 주로 유치원 교육 사도직을 하는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959 년 폰니에서 교사로, 1960 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페레레 다스티에서, 1961 년부터 카포리베리에서 주방담당으로, 1974 년부터 면학을 위해 알바노 라찌알레 모원에서, 1976 년 토디에서 1 년간의 유치원 실습, 1977 년부터 페스키에라 보로메오의 베틀라에서 교사로, 1979 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캄파라다에서, 1980 년 세스티 레반테에서 여전히 교육에 헌신하였고, 1955 년부터 공동체 봉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네그라르에서, 1997 년부터 베로나 보르고에서, 2006 년부터 트렌토 탐보시에서 가정사목을 담당하셨고, 2009 년부터 오늘까지 네그라르 공동체에 계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가정사목과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단순하고 관대한 빠스또렐라로 묘사됩니다. 매일의 충실함을 증거하면서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기도시간을 엄수하여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기에 건강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수도회, 교회 및 전세계의 모든 지향을 위해 기도하려 정오에 공동체를 모으는 묵주기도에 참여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병든 자매들이 편안하고 영적인 시간을 살도록 하기 위해 공동체의 다른 자매들과 만나는 순간에 기꺼이 참여하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공동체에서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이 할 수 있고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매일의 작은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면 뜨개질이나 뜨개질 바늘로 한 일거리들과 교환하여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2000년에 암진단을 받으셨지만 테레사 수녀님은 때로 인간적 연약함이 더 드러날 때에도 강한 정신력으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특히 병환의 마지막 시기에 커다란 관대함과 사랑으로 수녀님을 돌보고 지탱해 주신 수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테레사 수녀님의 성소의 선물에 대하여 선한목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전염병으로 시험받는 **고통받는 인류를 향한 사목적 모성의 예언적의 선물을 성령으로부터 받아들이고 마리아처럼 살아가는** 목표를 보여주는 수도회의 여정을 이 수녀님의 전구에 맡겨드립니다.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
총원장

2020년 7월 10일 로마에서